『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2권 1호(2006년 6월) 135-150

존 반빌의 『뉴턴 레터』에 나타난 뉴턴의 의미

최 석 무

1. 서론

아일랜드 최근 소설 특집호로 발간된 『아이리시 유니버서티 리뷰』(*Irish University Review*) 2000년 봄/여름호는 아일랜드 최근 소설 연구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편집장인 앤소니 로치(Anthony Roche)는 "서문: 최근 아일랜드 소설" (Introduction: Contemporary Irish Fiction)에서 최근 아일랜드 소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그는 아일랜드에 관한 "탈식민주의나 문화연구와 같은 이론 분야"와 "시와 드라마" 장르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소설은 비평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vii). 그 이후 이러한 현상은 많이 달라져 최근 아일랜드 소설에 관한 연구도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로치의 지적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랜드의 정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박지향 교수가 쓴 『슬픈 아일랜드』, 그리고 탈식민주의나 문화연구 이론을 적용해 쓴 수많은 아일랜드 문학연구 논문이 이를 잘 말해준다. 장르면에서 최근 아일랜드의 시인과 극작가들은 영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평가되어 많은 연구논문이 쏟아지고 있다.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와 이반 볼랜드(Eavan Boland)와 같은 최근 아일랜드 시인,

브라이언 프리얼(Brian Friel)과 마틴 맥다너(Martin McDonagh)와 같은 아일랜드 극작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아일랜드 소설 연구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에 국한되어, 최근 아일랜드 소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아일랜드 소설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최근 아일랜드 소설가중에서 존 반빌(John Banville)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최근 소설가 가운데 한사람으로 주목받아왔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로치는 반빌을 "제니퍼 존스턴(Jennifer Johnston), 닐 조던(Neil Jordan) 등과 함께 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vii)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는 오늘날 더욱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스벤 버커츠(Sven Birkerts)는 2001년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마지막 천재"라는 제목으로 반빌을 평가하면서, "이제 50대 중반임에도 이미 많은 소설을 썼고 거의 모든 최근의 작품이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다(50). 그의 문학적 성과는 권위있는 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 2005년에 『바다』(*The Sea*)란 작품으로 북커(Booker) 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인 소설가로 평가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반빌의 작품 중에서 1982년에 출간된 『뉴턴 레터』(*The Newton Letter*)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코페르니쿠스 박사』(*Doctor Copernicus*) (1976), 『케플러』(*Kepler*) (1981), 『메피스토』(*Mefisto*) (1986)와 더불어 흔히 반빌의 4부작(tetralogy) 소설이라 불린다. 네 작품은 각기 다른 작품이지만 공통적으로 과학을 중심소재로 삼고 있다. 리엄 히니(Liam Heaney)가 주장하듯이 반빌의 소설은 과학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아일랜드 작가의 작품과 사뭇 다르다. 즉, "조이스의 『율리시스』(*Ulysses*), 히니의 『자연주의자의 죽음』(*Death of a Naturalist*), 예이츠(Yeats)의 『탑』(*The Tower*)과 같은 작품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과학적인 현상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반빌의 작품은 "과거의 주요한 과학적 인물을 이용해 과학적, 문학적 상상력을 정교하게 제시"하여 과학의 중요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364). 그렇지만 『뉴턴 레터』는 앞서 발표된 두 소설, 『코페르니쿠스 박사』와 『케플러』와는 과학자를 제시하는 양상이 다르다.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는 흔히 역사소설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제시되어있으나, 『뉴턴 레터』에서 뉴턴은 그렇지 않다. 샤먼(Sharman)은 『뉴턴 레터』는 "뉴턴에 관한 책이 아니며, 뉴턴의 사상이나 업적을 고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83).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뉴턴 레터』라고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뉴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뉴턴 레터』에서 뉴턴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뉴턴이 작품 전개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뉴턴의 생활과 그의 과학적 발견이 작품을 해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려한다.

2. 뉴턴과 화자와 텍스트

『뉴턴 레터』는 뉴턴이 존 로크(John Locke)에게 쓴 두 통의 편지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편지와 뉴턴의 화재에 관한 일화(22-23)이외에 소설 전체에서 뉴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도 두 번째 편지는 작가가 가공의 편지라고 작품 끝에 주석을 달고 있어 위대한 과학자로서의 뉴턴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제목과 더불어 작가는 뉴턴이 작품해석의 주된 역할을 하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화자인 "나"라는 인물을 뉴턴의 전기를 쓰고 있는 역사학자로 등장시킨다. 그는 현재 뉴턴 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펀 하우스(Fern House)라는 시골집에 머무르게 된다. 그 집은 과수원이 있어 화자에게 뉴턴이 "울스또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정원에서 잘 익은 사과가 그의 머리주위에 떨어진" 상황을 상기시킨다(6-7). 화자의 말대로, 현재의 그의 환경은 그로 하여금 뉴턴의 전기를 "완성할 수 있는 전망"(6)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과나무는 소설 중간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화자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샬롯(Charlotte)의 차를 타고 시내에 가다가 샬롯이 펑크가 났다고 갑자기 차를 세운 곳에서 "야생 사과나무 한 그루"(46)를 보게 된다. 이렇게 『뉴턴 레터』는 뉴턴의 전기를 쓰는 화자와 뉴턴을 상기시키는 배경을 포함하고 있어 뉴턴적 관점에서 소설을 읽게 한다.

더 나아가, 화자는 단순히 뉴턴의 전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걷는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빌은 과학자의 삶을 역사학자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는 "과학발전의 역사는 동시에 인간의식의 진화임으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어떤 주어진 문화 속에서 세계에 대한 똑같은 기본 개념을 반

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harman 382). 그가 지금 쓰고 있는 뉴턴의 전기부분은 뉴턴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 말해준다. 화자는 현재 뉴턴이 로크에게 보낸 편지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 편지에서 뉴턴은 로크가 자신을 "여성들과 복잡한 관계에 빠지게 한 것"(5)에 대해 비판한다. 화자는 뉴턴의 "고통과 비통한 고뇌"(5)에 대해 생각한다. 뉴턴에 대한 이러한 화자의 연구 과제는 이 소설이 화자 자신이 여인들 사이에 고뇌하고 갈등하는 이야기임을 암시하면서 전체 작품을 뉴턴과 연관해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뉴턴이 보낸 편지는 앙드레 지드(Andre Gide)가 미장아빔(mise-en-abyme)이라 부른 기법의 좋은 예로서 "전체 작품과 유사함을 보이는 작품 속에 포함된 어떤 장면"이라 할 수 있다(Hwang 132 재인용). 화자도 이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편지는 "나머지를 모든 것을 반영하고 포함하고 있기에 나의 작업의 중심에, 그리고 아마도 뉴턴의 작업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다"(50)라고 말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뉴턴 레터』에서 뉴턴의 인생여정은 화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화자는 뉴턴이 화재로 귀중한 연구 자료를 소실한 후, 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뉴턴은 과학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고 "연금술"과 "신학"(6, 23)과 같은 비과학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산책하는 일과, 대학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상인들, 판매인 그리고 물건 만드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한다"(50). 그의 이러한 변화는 그가 이제까지 해온 일에 회의감을 갖게 되어, 이제는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도 "라틴어나 영어가 아니라, . . . 평범한 것들이 [그]에게 말하는 언어"(51)로 정의된다. 이러한 뉴턴의 변화는 화자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화자는 뉴턴이 과학을 포기한 것처럼, 역사가로서 글을 쓰지 못하는 위기를 겪는다. 화자는 포포브(Popov)라는 가상의 뉴턴 전기 작가를 예로 들면서 "허무맹랑한 중세주의를 배격하고 이성의 시대를 회복한," "세상이 아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의 뉴턴"(22)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는 그 이유로서 "또 다른 종류의 진실이 더 긴박해보이기 때문"(22)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가 찾는 진실이 "과학적 고고한 진실과 견주어 아무것도 아니라고"(22) 하지만 이를 추구한다. 그는 그 진실을 뉴턴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세계 속에서 찾는다. 그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색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수수께끼 가운데서 가장 이상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11)이라고 말한다. 데렉 핸드(Derek Hand)가 지적하듯이 반빌은 일상적인 것

에 의미를 부여하려한 점에서 조이스와 비슷하다(50).

『뉴턴 레터』에서 화자는 뉴턴의 전기 쓰는 일을 그만두고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대자연의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한다. 작품 여러 군데(16, 23, 34, 42, 47)에서 발견(revelation, reveal, discovery)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렇지만 다섯 상황 모두 다, 인생의 대단한 비밀을 보여주는 발견은 아니다. 또한 화자는 우주의 질서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일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예를 들어, 화자는 자신이 오털리(Ottilie)와 성관계를 맺게 된 계기를 질서정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저 침대에 이르게 된 각자의 여정 지도"(27)를 구상한다. 샬롯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과거 몇 달간의 비밀스런 패튼"(42)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혼란스런 상황에 질서를 부여한다. 반빌은 우리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발견이나 질서를 부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한 뉴턴을 패러디하면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뉴턴의 우주질서 패러디는 뉴턴의 업적을 희화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화자는 뉴턴의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두 번 언급한다. 첫째, 뉴턴이 그의 이론의 기반이 된 "공간과 시간과 움직임의 절대성에 록이 도전"(50)하자 그에게 편지를 쓴 사실을 언급한다. 둘째, 샬롯에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움직임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63)을 인식하게 되어 뉴턴이 과학연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뉴턴이 그의 발견에 회의감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듯이, 이 작품은 주위의 평범한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이러한 현실에의 관심은 뉴턴의 주된 이론인 중력이 인물의 갈등상황 및 주위환경을 설명하기위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3. 끌림 현상과 등장인물들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뉴턴 레터』를 구성하는 주된 원리로 작용한다. 오털리는 화자가 뉴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자, "머리 위에 사과가 떨어져(fell) 중력을 발견한 사람"(9)으로 뉴턴을 이해한다. 이 책을 읽을 정도의 독자라면 다 알고 있을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등장인물이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력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중력의 기본적 원리인 떨어지는 현상은 작품 도입부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는 자신이 "횃대(perch)에 올라가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2)는 상황에 있다고 비유한다. 그는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기에 언젠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마이클(Michael)은 실재 나무에서 떨어진다(24). 화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 쓰러진 나무는 중력이 작용할 결과를 보여준다. 쓰러진 나무는 작품 말미에서 오털리가 보내온 사진에서도 보인다. 그녀는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 있다"(78). 나무에서 떨어지는 또는 나무가 쓰러지는 현상은 중력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중력의 작용은 계절의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폭풍이 지나가자 화자는 "여름은 끝났다"(60)라고 말한다. 즉,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fall)이 온 것이다. "fall"은 가을뿐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 현상을 암시한다. 그동안 펀 하우스에서 "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79) 낭만적 생활을 해온 화자가 추락할 차례이다. 그는 실제로 펀 하우스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떠나는 장면은 아담이 원죄에 의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즉, 화자는 그가 떠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마이클이 "불이 붙은 검"(76)을 가진, "아담을 천국에서 몰아낸 대천사 마이클"(D'hoker 112)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담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도 인류의 타락을 뜻하는 "Fall" 때문이다. 반빌은 "fall"을 의미하는 장면을 작품 여기저기에 심어두어 중력의 법칙을 상기하면서 작품을 읽게 한다.

『뉴턴 레터』에서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물리적 현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빌의 궁극적 목적은 물리적 현상을 통해 인물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심적, 정신적 영역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베렌스메이어(Berensmeyer)는 뉴턴의 중력의 개념이 사람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양상을 "인간이 서로에게 느끼는 끌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작품 내용상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오히려 물건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중력의 작용으로 어쩔 수 없이 땅에 떨어지듯이, 인간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끌리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방적 끌림 현상이 작품의 주요한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집인데, 이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러한 끌림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Sharman 374).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화자는 자신이 어떻게 펀 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는지 설명한

다. 처음에 화자가 그 집에 가게 된 것은 "이름"(3) 때문이었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했"(3)지만 그가 본 것은 "담쟁이덩굴과 표면이 벗겨진 벽과 부서진 채광창"이 있는 집으로 "미친 의붓딸이 다락에 갇혀 있을법한 곳"(3)임을 발견한다. 그가 머물게 될 별채도 그를 실망시키기 충분하다.

> 그들이 별채라고 부른 숙소는 차도 끝쪽 도로 가에 있었다. 예전엔 담과 높은 기둥이 있는 문이 있었으나,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 . . 문이 끽소리를 냈다. 침실과 거실, 작고 지저분한 부엌, 더 작은 화장실. . . . 나는 부엌 찬장을 열었다: 깨진 머그컵과 쥐똥. (4)

기대와는 달리 지저분한 집을 보고 화자는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화자는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있지만, "서두르면 한 시간 후에 도심으로 돌아갈 기차"도 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집주인인 샬롯에게 "한 달치의 집세를 선불"(4)로 주면서 계약을 한다. 화자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무엇에 홀렸는가? 펀 하우스는 내가 어렴풋이 꿈꾸어왔던 울스똘프라 할 수 없는데"(4)라고 말한다.

화자는 펀 하우스에 머물면서 마이클이 생일날 초대한 급우들을 보고 끌림 현상을 목격한다. 화자는 마이클의 친구들이 "모두가 작고 가난해 보이는 애들로 같은 유형"(31)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왜 그가 그들을 택했는가? 학교에서 그들이 그의 유일한 친구인가"(31)라고 하면서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상하게도 특정부류의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뉴턴 레터』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화자 자신에게 일어남을 보여준다.

화자는 이상하게도 샬롯에게 끌린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45)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그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큰 열정을 가지게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45)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화자는 그녀에게 관심을 표명한다. 그가 펀 하우스에 거주하기로 결심하고 집세를 주는 장면도 그의 주체적인 결심이 아니라 무언가 홀린 사람의 모습이다. 즉, 그는 "현관에 있는 샬롯을 지나서 그녀의 우윳빛 냄새를 맡게 되고 자신이 그녀에게 한 달치의 집세를 선불로 주는 소리를 들었다"(4)고 적고 있다. 그는 제3자가 되어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묘사한다. 그는 온실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아마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14)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고 "그녀의 얼굴은 텅빈 것"(14)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그녀와 헤어진 후 "어떤 계시"가 왔고 "무언가 일어났다"(16)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끌린다고 말한다. 그는 "눈 주위의 잔주름, 윗입술에 나온 솜털"(14, 42)이 난 샬롯의 중년의 외모를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화자는 샬롯을 상상할 때 "앞쪽에 지저분한 엄지손가락 지문이 묻어 있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비스듬하게 찍은 꾸겨진 흑백사진"(43-4)을 연상한다. 이는 그녀의 나이든 외모, 친근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도 "그녀의 차양모, 뒷문에 아무렇게도 놓여있는 진흙투성이의 장화"이다. 그는 "이런 추억거리들의 범상함이 이것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44)이라 말하면서 일상적인 평범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화자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도 중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는다. 오털리는 중년의 화자를 사랑한다. 그녀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나 자신을 이렇게 까지 주어본 적이 없어"(67-8)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끌리는 감정을 표현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도 역시 중력의 관점으로 표현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화자는 "부주의해서 어떤 것을 떨어뜨려 주위에 조각조각 깨어지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느낀다"(68). 또한 작품 말미에서 화자가 북극지역에 가있을 때 오털리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중력의 개념으로 표현한다.

> 펀즈(Ferns)에 있을 때, 그녀는 말했었지, 그녀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녀는 마치 한팔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고 — 그런데 지금 난 크고 어색한 여분의 팔에 눌린 기분이야. 그 팔로 무얼 할지,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 밤에 그건 날 잠 못들게 해. (78)

한 쪽으로 끌리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물체가 무게를 지니는 것도 중력의 작용이다. 오털리의 화자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중력의 두 가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펀 하우스를 떠난 화자에게 "살고자 하는 욕망"(70)을 불러일으킨 것은 오털리가 임신한 화자의 아이 때문이다. 여기서도 중력의 법칙은 작용한다. 작품 시작부에서 오털리는 "큰 골격"과 "몸집이 큰"(9)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녀는

임신으로 인해 몸무게가 늘게 된다. 이제 화자가 그녀에게 끌리게 된다. 중력은 작은 물건이 큰 물건에 끌리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작품 끝 부분에서 화자는 편하우스에 되돌아가 "오털리, 가련한 샬롯, 두 소년들"(81)과 살 계획을 세울 정도로 오털리의 임신은 그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궤도(Orbit)와 인생의 순환

중력은 물체를 땅으로 끄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구와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 때도 작용한다. 『뉴턴 레터』는 행성의 궤도는 아니지만, 작품 여기저기에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궤도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화자는 쥐잡는 사람들이 쥐를 잡기 위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원을 그리며 재빨리 도는"(8) 쥐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쥐의 모습은 화자에게 어떤 질서감이 아니라 "대재앙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8). 또한 오털리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책상에 놓아둔 종이가 햇빛 속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장면"(9-10)을 본다. 종이의 회전이 해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행성이 태양주위를 회전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렇지만 화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다"(9). 원형모양의 장소도 궤도를 상기시킨다. 화자는 온실에서 샬롯을 만난 다음 산책을 한 후 집의 뒤쪽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원처럼 생긴 정원이 신비스럽게도 그를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한 것이다"(16). 그러나 그가 느끼는 감정은 "혼동스러움"이다(16). 세 개의 예에서 화자가 주위에서 발견한 궤도의 이미지는 뉴턴이 발견한 우주의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가 에드워드(Edward)와 이야기하는 다음 장면은 궤도의 의미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나도 예전에 시를 조금 썼지." 인간이여! 놀랄 일이 바닥나지 않네. "물론, 그만뒀지, 다른 것과 더불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댄넬 해협의 푸른빛이 그의 어둠침침한 눈 속에 잠깐 나타났다. 나는 매가 하늘을 선회(circling)하는 것을 본다. 내가 무엇을 안단 말이지. 아마 개봉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시 다발이 그의 책상 뒤쪽 어디엔가 있을 거야. (33)

화자는 에드워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상공을 선회하는 매를 왜 첨가하고 있는가? 에드워드가 매의 움직임처럼 알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인간은 매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뉴턴의 우주질서 발견도 제한적 성과이기에 화자는 뉴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다.

화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오털리와 연관되는 장면에는 궤도의 이미지가 여러번 등장한다. 오털리가 화자를 데려간 침실의 방에는 궤도를 상기시키는 "소용돌이 장식"(curlicues)(55)이 달린 침대가 있다. 이 방은 "검은 머리카락"(55)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샬롯의 침실이며, 침대의 궤도의 이미지는 혼란과 갈등을 상징한다. 침대에 누워 화자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창백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무리의 새들이 높이 날면서 들판 위를 조용히 선회하는(wheeling) 것을 본다"(55). 그리고 잠시 후, 화자와 오털리는 심하게 다투게 된다. 그날 오후, 화자는 샬롯과 오털리가 "서로 경계하면서 선회(circle)하는"(58)지 자문하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궤도의 양상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궤도로 대변되는 뉴턴의 우주질서 발견은 "이성의 시대"(22)를 회복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인물들은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오털리는 화자를 샬롯 방에 데리고 오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화자는 폭력을 행사해 오털리에 대항하고, 오털리와 샬롯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둥근 궤도의 이미지는 인물의 생활상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 화자는 펀 하우스에서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어지럽게 순간 순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의 인생은 없었다. 그것은 모두 이미 벌써 살아온 삶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정해진 패튼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처럼. . . . 지금 나는 이미 벌써 불변하고 투명하고 완벽한 과거의 일부로 이 여름을 보았다.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49)

여기서 화자는 궤도를 순회하는 행성처럼 우리의 삶은 똑같은 여정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리스(Lawless)가 사람들의 삶도 독자적인 삶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온 양식을 따를 뿐이다. 화자는 이 집안의 사람들을 몇 달간 관찰한 결과,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사람들의 혼란된 삶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사소한 동작

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필수불가결한 매우 복잡한 의식"(59)임을 깨닫게 된다. 에드워드가 구토를 하면서 쓰러진 밤에 인물들이 보이는 행동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된다. 화자는 샬롯이 "예전에 많이 했던 의식"(72)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본다. 화자도 어릴적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의식을 생각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어른들"(72)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인생은 같은 길을 다시 가는 여정임을 깨닫는다.

인물의 모습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화자는 로리스가를 매입하기 위해 온 고리대금 업자인 프룬티(Prunty)를 묘사하면서 "예전에 그를 본적이 있지: 그는 하나의 유형(type)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예단한다: "돈을 벌었으니 이제 유형과 품위를 쫓겠지. . . . 결국 그는 귀족이 되어 이름을 바꾸겠지"(62). 여기서 반빌은 의도적으로 프룬티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다. 프룬티라는 성은 가난한 아일랜드 농가에 태어나 영국에 건너가 프랑스식으로 이름을 바꾼 브론테(Bronte) 가족의 원래 성이다. 브론테의 아버지 패트릭(Patrick)은 영국에 가서 "극우 토리당원 및 영국국교도 목사"가 되었다(Eagleton 18). 반빌은 프룬티라는 이름을 통해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있어왔음을 보여준다.

반빌이 뉴턴을 이 작품의 주요 소재로 하고 화자의 생활과 대응을 이루도록 한 것도 또한 궤도처럼 순환적인 인생을 담기 위해서 이다. 뉴턴이 신경쇄약으로 과학을 포기한 사실은 화자가 뉴턴의 자서전 쓰기를 포기한 행동의 원형으로 작용한다. 특히 오틸리에게 냉담한 그의 모습은 뉴턴의 모습과 일치한다. 뉴턴은 "정서적인 따스함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결여된 서구과학의 위기를 대변하는 자"(Berensmeyer)임으로 그의 모습은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과학자에게로 확대된다. 뉴턴은 화자가 생각하듯이, "지성의 위대한 과업을 위해 세상과 인간의 행복을 포기한 모든 차가운 영웅들"(50) 중의 한사람이다. 뉴턴처럼 화자는 오틸리의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는 냉담한 인물로 마지막 부분에 북극지역에 가서 냉담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뉴턴 레터』는 끊임없이 회전하는 인생관을 보여준다. 계절변화는 끊임없이 회전하는 궤도의 모습이다. 북극권에 있으면서 화자는 "주위에 봄이 왔음을 느낀다"(80). 그러나 봄을 "진부한 것"(80)이라 묘사하고 있다. 궤도처럼 계절은 한 해가 지나면 다시 반복해서 돌아온다. 그의 인생도 계절처럼 진부함의 연속이다. 그는 펀 하우스로 돌아가 뉴턴 전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와 저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끝마치지 못한 채 다시 떠나야만 하는,"

그리고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 새로운 폐허 속에서 상심한 채, 속임을 당한 채 잠에서 깨어날" 운명을 걱정한다(81). 그의 인생은 결심과 후회의 궤도를 따라가는 반복임을 보여준다. 화자는 어떠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진보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으로의 역사의 개념을 보여준다. 뉴턴의 궤도의 개념은 이런 화자의 인생관과 역사관을 잘 표현해준다.

5. 결 론

『뉴턴 레터』에서 뉴턴은 작품 전체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소설 전개과정에서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빌은 작품제목과 배경, 뉴턴의 전기적 사실 등을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뉴턴이 작품해석의 주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뉴턴을 통해 화자의 인생행로를 짐작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뉴턴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게 한다. 뉴턴이 그의 과학적 발견에 회의감을 느껴 평범한 일상에 관심을 가졌듯이, 이 작품은 화자가 주위의 평범한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작품의 배경설정과 등장인물의 생활상을 묘사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된다. 특히 중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끌림 현상과 궤도유지 현상은 화자나 화자주위의 인물의 상태나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일관되게 사용된다. 따라서 『뉴턴 레터』에서 반빌은 현재의 삶에서 뉴턴의 삶과 그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지, 뉴턴의 발견의 위대함을 보여줄 의도로 작품을 기획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에서 발견되는 중력의 예를 통해서 뉴턴의 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뉴턴 레터』에서 뉴턴은 작품을 해석하는 좋은 틀이 된다. 뉴턴의 흔적을 따라 작품을 읽다보면 무질서한 텍스트에서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인물들의 행동은 뉴턴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잭슨(Jackson)은 『코페르니쿠스 박사』를 논하면서, 반빌은 "지식의 붕괴와 더불어, 실패한 과학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예술의 변증법적 출현에 관심"(515)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뉴턴 레터』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반빌은 과학과 지식를 신뢰하지 못하는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작품에 예술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뉴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반빌은 조이스가 『율리시스』에서 오딧세이 신화를 사용하여 "허

무와 무질서로 가득한 현대사를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와 중요성을 제공"하려 한 것과 유사한 의도를 가졌다(Eliot 177). 그러나 이 질서는 심미적, 예술적 질서로 제한적이다. 현대의 무질서한 세상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성이 뛰어난 작품 속에 질서와 균형의 미를 창조하는 것뿐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Banville, John. *The Newton Letter*. Boston: David R. Godine Publisher, 1982.

Berensmeyer, Ingo. "The Crisis of Modernity and the Postmodern Interlude: John Banville's *The Newton Letter*." http://marksarvas.blogs.com/ elegvar/2003/10/banville_and_th.html.

Birkerts, Sven. *Esquire* 135. 1(2001): 50-59.

D'hoker, Elke. *Visions of Alterity: Representations in the Works of John Banville*. Amsterdam & New York: Rodopi, 2004.

Eagleton, Terry. *Heathcliff and the Great Hunger*. London & New York: Verso, 1995.

Eliot, T. S. "*Ulysses*, Order and Myth."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 Frank Kermod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Farrar, Straus and Groux, 1975, 175-78.

Hand, Derek. *John Banville: Exploring Fictions*. Dublin: The Liffey Press, 2002.

Hwang, Hoonsung. "Samuel Beckett's Narrative Strategy of Mise-en-abyme in *Happy Days and Krapp's Last Tape*." 『한국영어영문학회 제87차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132-35.

Heaney, Liam. "Science in Literature: John Banville's Extended Narrative." *Studies*. 85.340 (1999): 362-369.

Jackson, Tony E. "Science, Art, and the Shipwreck of Knowledge: The Novels of John Banville." *Contemporary Literature*. 38(1997): 510-33.

Roche, Anthony. "Introduction: Contemporary Irish Fiction." *Irish University Review*. 30. 1(2000): vii-xi.

Sharman, Gundula. "Elective Affinities with Ireland: John Banville's *The Newton Letter and Goethe's Die Wahlverwandtschaften.*" *Internationale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 38(1999): 369-84.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Newton in John Banville's *The Newton Letter*

Seokmoo Choi

With the appropriate and ingenious introduction of the title, background, and biographical facts of Newton, Banville leads us to read *The Newton Letter* in terms of Newton's life and his scientific discoveries. The narrator writing Newton's biography is continuously connected with Newton, which helps us guess that he, like Newton, will become skeptical of his work and show his new interest in ordinary life.

The Newton Letter demonstrates how the law of gravity is working not only in our surroundings but also in the characters, such as Ottilie, Michael, and the narrator. In particular, the narrator, who has often had sexual relations with Ottilie, is attracted to Charlotte, a middle-aged woman, for which he cannot give any logical explanation. The process of how the narrator contemplates returning to Ottilie is also described in terms of gravity.

Images of circles and wheels are found throughout the text, recalling orbits, around which the earth and the other planets are moving by the working of gravitational attraction. Those images found in everyday life do not give us any sense of order, thus making us skeptical of Newton's discoveries. The concept of orbits is also applied to characters, who seem to trace the set patterns of life, a kind of orbit.

In *The Newton Letter*, Banville, instead of glorifying Newton as a great scientist, shows the limitation of his theory by asking if his discoveries restored the age of reason. Characters do not feel any sense of order from the way gravity works in our daily lives. Nonetheless, when we read the novel tracing Newton and his discoveries, we feel that the writer tried to create a sense of order out of

disorder. Creation of artistically balanced work, Banville believes, is the only solution to the frustrating reality of our life.

■ Key words : *The Newton Letter*, Banville, science, Irish fiction, Newton
(『뉴턴 레터』, 반빌, 과학, 아일랜드 소설, 뉴턴)